■민족문화연구 제96호(2022.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417-453.
http://doi.org/10.17948/kcs.2022..96.417

1960-1970년대 공장노동자의 신용협동조합운동* **
—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

오미일(吳美一)***

목 차

1. 머리말
2. 신용협동조합운동의 추이와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3. 공장노동자의 신용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4. 맺음말

국문초록

1962년 답동신협 설립으로 시작한 인천지역 신용협동조합운동은 처음 가톨릭교단의 교회유대에 기반을 둔 조합 설립이 대부분이었으나, 1960년대 말에 이르러 공장노동자의 직장유대를 기반으로 한 조합 설립으로 추세가 바뀌었다. 공장노동자들의 신용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한국연구재단 2018S1A5A2A01035374).
** 본 논문 작성에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전화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주신 현대제철신협 김덕호 이사장님, 정해영 철우기업(주) 대표님, 대성신협 오경문 전무님과 김성근 전 이사장님, 전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노동간사 이민우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 교수.

협동조합 설립은 노동운동의 전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인천지역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감리교계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였다. 도시산업선교회는 운영위원회 아래에 신용조합위원회를 두고 신용협동조합 설립을 시도했다. 1967년 10월 산우회 평신도그룹 15명이 결성한 이천전기신용조합이 인천지역에서 공장노동자들로 조직된 최초의 신용협동조합이었다. 이 글에서는 공장노동자들, 그리고 공장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협의체로 조직된 신용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사례로 대성신용협동조합, 인천중공업신용협동조합, 산우신용협동조합의 설립과정과 운영에 대해 분석했다.

이들 신용협동조합은 보통대부, 출자금범위내 대부, 긴급대부, 소액대부, 특별대부 등의 대출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조합원을 고리채의 늪으로부터 구제했다. 조합원들은 대개 월 6%(연 72%) 이상인 시중 고리대보다 훨씬 저렴한, 월 2%(연 24%) 내외의 이자율로 생활자금을 차입하여 협동금융의 혜택을 받았다.

주제어: 신용협동조합운동, 공동유대,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대성신용협동조합, 인천중공업 신용협동조합, 산우신용협동조합, 이국선 목사, 백창섭, 정양숙.

1. 머리말

한국 협동조합운동은 1920년대부터 시작하여 민간의 상호부조, 자립자주적 운동으로 전개되어 왔다. 일제시기와 해방 직후 협동조합운동은 주로 소비조합 설립으로 전개되었으나, 1960년대 초 이후 신용조합[1] 창립이 대세를 이루었다.

1960년대에 시작된 신용협동조합운동은 오늘날 새마을금고와 함께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신협의 기원을 이룬다는 점에서 한국 협동조합운동사에서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 1972년 신용조합법의 공포에 따라 그동안 설립된 민간 신용협동조합은 대부분 재무부 이재국의 인가를 받는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법적 보호를 받는 제도권 서민금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민간에서 자주적으로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이 제도권으로 이전한 것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1) 신용협동조합운동가들은 초기에는 신용조합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다가 이후에 신용협동조합이라고 고쳐 썼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 사용하는 신용협동조합이란 단어로 통일하며, 경우에 따라 신협으로 줄여서 표기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성가신용조합'과 같은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신용조합이라고 표기했다.

떠나 협동조합운동의 중요한 획기를 그은 사건이었다고 할 것이다.

물론 오늘날과 1960년대의 신용협동조합은 정체성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인다.[2] 금융위기 이후 신협에 대한 정부 통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초기 협동조합운동의 정신이 쇠퇴하고 지역사회개발사업이 사회적 책임보다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앞으로 협동조합운동 과정과 시대 변화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통해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1960년대 초에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출자하여 자금이 필요한 조합원들에게 대부하는 협동조합금융(Coop Finance)의 전형이란 점에서 그 창립과 정착, 변화의 과정은 협동조합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1960-1970년대 신협운동에 관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원주지역의 원주신협, 진광신협 연구를 들 수 있다.[3] 가톨릭 원주교구 초대교구장인 지학순과 지역운동가 장일순이 주도한 원주지역 운동은 신용협동조합운동을 처음 실천한 가톨릭교단이 조합 설립과 함께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확장하여 나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점에서 주목할 사례이다.

한편 1972년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에서 설립한 영등포산업개발신용협동조합에 관한 연구도 있다. 이 조합은 재무부 인가조합 1호로 운영하던 중, 1978년경 독재정권에서 노동 탄압의 일환으로 조합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한 후 자진해체하고 비인가조합 '다람쥐회'를 창립했다.[4] 다람쥐회

---

2) 신협 내부에서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이 시작된 것은 1972년 신용협동조합법 제정 이후로, 진로 모색과 성장을 둘러싸고 1970년대, 1980년대에 전개되었다. 논쟁은 연합회 회장 선거를 계기로 표면화되었는데, 신협의 운동기관적 성격을 강조하는 정형론적 입장과 금융기관으로서의 경영적 성격을 강조하는 성장론적 입장으로 나뉘어 협동조합의 자발성과 정부 개입 문제, 이사진의 무급봉사와 유급상임이사 설치문제 등 운영원칙을 둘러싸고 대립했다. 최진배, 「1970년대 신협의 발전방향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검토」, 『한국협동조합연구』 30-3, 2012; 최진배・권오혁・김명록, 「한국 신협의 성장과 정체성 논쟁」, 『한국의 지역금융협동조합』, 율곡출판사, 2018, 4-60면 참조.

3) 김소남, 「1970년대 원주지역 재해대책사업위원회의 농촌신협운동 연구」, 『동방학지』 166,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4; 방성찬, 「1960-70년대 원주교구의 지역 신협운동: 진광 협동교육연구소와 진광신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강릉원주대 석사논문, 2017.

4) 김이경, 「사회적 관계에 기반한 대안적 금융의 신용체계 연구: 한 소규모 신용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 석사논문, 2013; 진방주, 「한국 기독교 협동조합운동 연구: 영등포산업선교회 협동조합운동 "다람쥐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일장신대 석사논문, 2018; 신명호 외,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한울, 2016, 234면 참조.

신용협동조합은 현재까지 비인가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자발적인 협동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원주 사례는 가톨릭교단이 주도했고 운동 공간과 주체가 농촌지역, 농민과 소시민인 데 비해, 영등포 사례는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가 노동운동 지원 차원에서 시도했고 대상 공간과 주체가 공업지구 노동자란 점에서 상호비교된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신용협동조합 운동이 가장 전형적으로,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영등포지역에 훨씬 앞서 나타난 곳이 인천지역이었다.

본 연구는 1960년 5월 가톨릭교단에서 처음 시작한 신용협동조합운동이 협동교육연구원[5]의 체계적인 교육이나 지원에 의해 또는 다양한 전파 경로를 통해 당초의 (가톨릭)교회유대를 넘어 직장과 지역사회로 확산되어가는 과정에 대해 고찰한 글이다.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곳이 1930년대 이래 대규모 공장이 집결된 경인공업지대로 1960-1970년대 노동운동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즉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가들이 직장유대에 기반한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을 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지역은 신용협동조합운동이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를 매개로 교회유대에서 출발하여 직장유대, 그리고 지역유대로 확산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구체적인 분석 시기는 대규모 공장에서 노동조합이나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신용조합 설립을 주도하는 1960년대 말부터 신용조합법 공포 이후 기존 임의조합이 재무부 인가를 받아 법인조합으로 운영되는 1970년대 중반까지로 설정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1960-1970년대 인천지역 신용협동조합의 설립 추이와 공동유대의 변화 흐름을 개관한 후,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과 신용조합 설립 시도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이후 대규모 공장에서 직장유대로 혹은 직장유대와 지역유대 협의체로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의 사례로 대성신협,

5) 메리 가브리엘라 수녀는 1962년 2월 신용협동조합 관련 교육과 설립 지원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협동조합교도봉사회를 발족했다. 이후 전국적인 운동 확산을 위해 1963년 7월 서울로 이전하면서 명칭을 협동교육연구원으로 바꾸었다. 『信協釜山二十年史』,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부산시지부, 105-109면.

인천중공업신협, 산우신협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분석하려고 한다.

2. 신용협동조합운동의 추이와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1) 신용협동조합의 설립 추이와 공동유대

1960년 5월 부산에서 성가신용조합이 그리고 같은 해 6월 서울에서 중앙신용조합이 창립된 이후, 1960년대 신용협동조합 설립을 주도했던 것은 가톨릭교회였다.[6] 반면 개신교는 대개 1960년대 말 1970년대에 이르러 신협운동에 참여했다.[7] 이러한 전국적인 추이는 인천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에 발간된『信協運動20年史』를 보면 인천지역에는 당시 총 33개의 신협이 설립되어 있었다(〈표 1〉 참조). 1962년 3월에 설립된 답동신협을 필두로 1960년대에 설립된 총 10개 신협 가운데 8개는 천주교회 관할 구역의 신자와 예비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공동유대에 기반하여 조직되었다. 즉 대성목재공업주식회사 노동자들로 조직된 대성신협이 1968년 4월 창립되기 이전까지 인천지역에서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은 모두 가톨릭교회의 공동유대를 기반으로 설립된 것이었다.[8]

그러나 1960년대 말 1970년대에 이르러 신협 조직의 공동유대에 변화가 나타났다. 〈표 1〉을 보면, 1968년 4월 설립된 대성신협을 시작으로 이후 인천중공업신협(1969)・산우신협(1970)・대우중공업신협(1973)・동일방직인천공장신협(1974)・새한자동차부평공장신협(1974)・인천항근로자신협(1975) 등 공장 근로자 또는 부두 노조원의 직장유대에 기반한 조합 설립이 증가했다. 수협경기지부임직원신협(1974)・인천세관신협(1977) 등도 이러한 직장유대에 의해 설립된 것이다. 또한 인천 시내 이용업 종사자를 조합원으로 한 인천이용신협(1973), 남구 이용업계 종사자와 그 관련자로

6) 오미일, 「1960년대 신용협동조합운동의 출발과 확산」, 『한국근현대사연구』 95, 2020, 389-419면.
7) 곽재기 목사(예장총회 농촌부 총무), 「교회와 신용협동조합운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농어촌부, 『교회와 농민: 선교편』, 양서각, 1986, 177면.
8) 〈표 1〉의 1-8항 참조.

조직된 제물포이용신협(1973), 인천담배소매인조합의 조합원들로 설립된 인천담배소매인신협(1976)과 같은 직능단체의 공동유대에 기반한 조합도 설립되었다.

요컨대 1960-1970년대 인천지역 신협 중 단체유대 가운데에서도 가톨릭 교회 신자로 조직된 것은 11개였다. 또한 감리교, 기독교장로회 등 신교 계통에서 설립한 것은 대성신협, 산우신협, 부민신협, 인성신협, 인천선린신협 등 5개였다. 직장유대를 기반으로 조직된 것은 13개였다. 한편 직능단체의 유대에 의해 조직된 신협은 3개였는데, 이 중 2개는 1990년 이전에 폐점했다. 따라서 1960-70년대 신협의 공동유대로는 단체(교회)유대가 가장 일반적이었고, 그 다음이 직장유대였다.

1991년에 발간한 『신협운동삼십년사』에 의하면, 1990년경에 이르러 공동유대가 변화된 조합은 총 7개로 단체(교회)유대로부터 지역유대로 변경된 것은 6개, 직장유대에서 지역유대로 변화된 것은 1개였다.[9] 주목할 점은 교회유대로부터 지역유대로 변화된 조합은 설립 당초부터 지역유대도 함께 설정한 곳으로 조합의 성장 과정에서 점차 교회유대보다 지역유대가 대세를 이루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1960년대 말-1970년대 인천지역 신용협동조합 현황

	창립시기(인가시기)	조합 명칭(인가번호)	공동유대	조합원수	총자산(원)	공동유대(변화)
1	1962.3.27. (1972.12.30)	답동신협(3-1)	천주교 답동교회 관내 신자와 비신자, 인천시내 거주자로 본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1,703	355,150,024	단체(△지역)
2	(1972.12.30)	도화동신협(3-2)	도화동 천주교회 신자 및 예비신자	565	144,475,000	단체
3	(1972.12.30)	인천박문신협(3)	박문여자중고교 직원 및 학생	2,809	38,957,000	단체 *가톨릭학교

9) 〈표 1〉의 '공동유대(변화)' 항목 참조.

4	1964.7.11. (1972.12.30)	송림동신협(4)	①송림성당 관할 내 영세신자와 예비신자 ②송림성당 관할 내 거주자로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89명, 자산 12,250원으로 출발	89→286	12,250→14,432,422	단체
5	1964.7.11. (1972.12.30)	부평2동신협(5)	교회	846	130,339,128	단체(지역)
6	1965.5 (1972.12.30)	부평1동신협(6)	①부평1동 천주교회 신자 ②부평1동 거주민	66→1,567	4,551→799,810,783	단체(△지역)
7	1965.9.23. (1972.12.30)	산곡동신협(7)	산곡1,2동,청천동,부평3동,효성동(천주교 관할지역) 34명, 4,200원으로 출발	2,197	666,760,012	단체(△지역)
8	1967.3.5. (1972.12.30)	용현신협(25)	①용현동 천주교회 신자 및 예비신자	271	45,000,000	단체
9	1968.4.12. (1973.3.9)	대성신협(29)	①대성목재 종업원 ②선교센타 관련자③ 조합원 직계가족	1,207	456,836,834	직장(지역)
10	1969.6.23. (1972.12.30)	인천중공업신협(14)	인천중공업(주) 인천공장 종업원	1,979	662,147,620	직장
11	1970.7.3. (1972.12.30)	산우신협(13)	①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관련 그룹 회원 ②조합원 2인 이상 추천받은 자		52,924,000	단체
12	(1972.12.30)	화수동신협(23)	천주교	210	24,687,000	단체
13	(1972.12.30)	인천양친회신협(24)	①양친회 회원 ②송림동 주민	606	115,247,619	단체(△지역)
14	(1972.12.30)	숭의동천주교회신협(26)	숭의동 천주교회 신자	135	16,307,000	단체
15	1973.1.26. (1973.8.2)	인천이용신협(36)	인천 시내 이용업 종사자	71	5,362,000	폐점
16	1973.4.19. (1973.8.2)	한국기계신협(35)	한국기계(주)인천공장 임직원	4,129	551,019,284	직장 *1977년 2월 대우중공업신협으로 개칭, 현 현대두산인프라코어신협

17	1973.6.17. (1973.9.5)	부민신협(41)	①송현교회 교인과 가족 ②상인천 거주 기독교인	1,626	1,081,892,288	단체
18	(1973.9.5)	제물포이용신협(43)	①남구 이용계 종사자 ②이용계에 연관된 자로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폐점
19	1974.6.4. (1974.10.2)	동일방직인천공장신협(60)	동일방직 인천공장에 근무하는 자	1,415	230,000,000	직장
20	1974.2.15. (1974.10.2.)	새한자동차부평공장신협(59)	새한자동차부평공장 근무자	1,891	287,436,698	대우자동차신협으로 개칭. 직장
21	(1974.12.31)	수협경기지부임직원신협(62)	수협경기지부 임직원	347	23,828,501	직장
22	1975.6.19. (1976.8.24)	계산신협(71)	천주교 신자 및 그 가족	1,761	299,610,036	단체
23	1975.11.6. (1976.8.24)	전방부평공장신협(70)	전방 부평공장 및 본사의 임직원	1,568	354,459,739	직장
24	(1976.8.24)	정우신협(73)	①인천시내 거주 경기도정구연맹 회원 및 그 가족 ②인천시내 정구구락부 소속회원		13,416,000	폐점
25	(1976.11.15)	대한마이크로신협(77)	대한마이크로전자(주) 종업원 및 고용원, 신협 직원 및 주방원, 청소원	1,102	220,343,209	직장
26	1975.11.22. (1976.12.31)	인천항근로자신협(80)	부두노조인천지부 조합원	2,722	276,923,158	직장
27	1976.5.8. (1976.12.31)	새한자동차인천공장신협(만석동)(79)	새한자동차 인천공장 임직원	206	25,860,188	폐점
28	1976.12.10. (1977.4.25)	삼익악기신협(83)	①삼익악기제조(주) 입사 후 3개월이 경과된 근무자 ②삼익악기제조(주) 출자기업체 입사 후 3개월이 경과된 자 ③삼익악기제조(주)의 출자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	353→3,500	204,000→202,33,421	직장

29	(1977.7.9)	인성신협(85)	인성여자중고 교직원 및 학생	2,000	33,167,000	단체
30	1977.7.30. (1977.10.28)	인천세관신협(89)	인천세관 직원	298	17,891,000	폐점
31	1977.7.30. (1977.12.26)	한국베아링신협(91)	한국베아링 임직원	1,017	117,873,973	*한국종합기계신협으로 개칭
32	1976.7.1. (1977.12.26.)	인천담배소매인신협(94)	인천담배소매인조합 조합원	1,184	142,684,923	단체
33	1976.12.24. (1978.6.29)	인천선린신협(99)	십정동 주민 및 선린감리교회 신자	464	29,989,082	단체(△지역)

자료: 『信協運動20年史』, 신용협동조합연합회, 1980, 835-857면; 『信協運動三十年史』, 신용협동조합연합회, 1991, 954-964면.

비고: ①조합 명칭, 조합원수, 자산은 1980년경 당시의 내용임. 그러나 송림동신협과 같이 창립 당시 상황이 기록된 경우 조합원 89명에서 1980년 286명으로 변동 상황 기재함. '(인가번호)'의 '3-○○'에서 3은 경기도, ○○는 조합 고유번호를 나타냄. ② '공동유대'는 단체(교회 포함), 지역, 직장으로 구분함. ( ) 안은 1991년 발간된 『信協運動三十年史』의 공동유대와 비교하여 변동 사항을 기재함. △는 설립 시 단체유대와 지역유대가 섞여 있었는데 이후 지역유대로 변화된 것을 표시함.

2)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와 신용협동조합운동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60년대 말 인천지역 신협운동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즉 종래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한 단체유대에 기반을 둔 신협 설립에서 나아가 대규모 공장노동자의 직장유대를 기반으로 하는 신협운동이 새로운 흐름으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 새로운 흐름에 동력을 제공한 것은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였다.

〈표 2〉 인천지역 공업지대의 공장수와 노동자수

공업지대	공장수	노동자수	지역
중공업지대	273	263,000	주로 동구(화수동, 만석동 등)
수출공업단지	167	121,000	부평
목재공업단지	80	13,600	주안
기계공업단지	350	17,000	부천
계	870	414,600	

자료: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소개와 활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인천지역 공업지대는, 〈표 2〉에서 보듯이, 대개 해방 후 귀속기업으로 불하된 기업들이 모여 있는 동구와 북구 지역의 중공업지대, 1960-1970년대 경제개발기에 조성된 부평지역 수출공업단지, 주안지역의 목재공업단지,

부천의 기계공업단지로 구분된다. 1970년대 중반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조사에 의하면, 특히 중공업지대의 경우 273개 공장에서 26만 3천여 명의 많은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 1960년대 초 산업선교는 이 동구지역 중공업지대와 부두에서 시작되었는데, 경제개발정책에 따라 수출공업단지(부평), 목재공업단지(주안), 기계공업단지(부천)가 조성되면서 점차 이들 지역으로 확산되었다.[10]

공장 노동자의 직장유대에 기반을 둔 신용협동조합의 설립은 노동운동의 전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1960년대와 1970년대 인천지역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인천도시산업선교회)였다. 1957년 4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는 총회 전도부 내 산업전도위원회 조직을 결의하고 도시산업선교 활동을 공식화했다.[11] 이에 따라 1957년부터 산업전도연구회와 노동문제연구회를 개최하였으며, 1960년 3월에는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영등포, 안양, 대구, 대전, 부산 등지에 실무자를 파견했다.

한편 인천지역에서 산업전도를 가장 활발하게 전개했던 것은 대한감리교 교단이었다. 감리교회는 1961년 8월 총회 전도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인천지역에 전도자를 파송했으며, 이 해 10월경 윤창덕·조용구 목사를 중심으로 인천산업전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이미 일부 공장에서는 노동자를 위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12] 즉 이 해 봄부터 내리교회 윤창덕 목사가 동일방직 기숙사에서, 그리고 주안교회 조용구 목사는 한국기계공업(주) 식당에서 점심시간을 활용해 전도활동을 하고 있었다. 도시산업선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이전에, 이미 군대의 軍牧 제도와 같은 공장 사목이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다.[13] 당시 산업선교를 사명으로 했던 목회자는

10) 인천기독교산업선교회, 「자립기금 신청」, 연도 미상(내용으로 보아 1975년경으로 추정).
11) 趙承赫, 『도시산업선교의 인식』, 民衆社, 1981, 2면.
12) 趙承赫, 앞의 책, 2면.
13)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에서 조지 오글 목사 등이 큰 비중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조승혁 목사는 실상 도시산업선교의 주체는 한국인 실무자들이었고 외국인 선교사의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말한다. 한국의 도시산업선교가 WCC(아시아교회협의회), CCA(아시아교회협의회)에 의해 주도되고 이들 기구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지도에 따라 활동했다고 보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다(조승혁, 앞의 책, 4

노동현장에서 신분을 숨기고 일정기간 직접 노동자로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남자는 1년 6개월, 여자는 6개월 노동해야 했다.[14]

인천지역 노동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감리교계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15] 선교활동의 방향을 구상하면서 운영위원회 아래 교육위원회, 주민향상회, 안전관리위원회, 직장여성위원회, 현대관리자회, 공장목회위원회, 노사문제위원회, 산우회, 그리고 신용조합위원회 등 각 부문 위원회를 두는 조직체계를 만들었다.[16] 이때 신용조합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이미 지역 내에서 가톨릭교회가 설립한 신협이 협동금융의 경제적 효과를 상당히 보여주던 상황이었으므로,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대공장 노동자의 신용조합 설립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였다.[17]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초창기 실무자 중심의 선교활동으로부터 점차 평신도 중심의 선교활동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평신도지도자 훈련, 노동자교회 조직 활동, 교회와 사회문제 세미나를 통한 개혁활동, 노동자 문화

면). 조승혁 목사는 1965-1973년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총무로 일했다. 그는 총무 재임 중에 황영환 등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만나 의식화교육을 실시했으며 느헤미야 모임이라는 평신도 노동자들의 모임도 운영했다. 1971년 5월 크리스천사회행동협의체(1975년 한국교회사회선교협의체) 사무총장, 1976년 한국기독교산업문제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종구 외 지음, 『1960-70년대 노동자의 생활세계와 정체성』, 한울아카데미, 2005, 193-194면; 조지 오글에 대해서는 이상록, 「1960-1970년대 조지 오글 목사의 도시산업선교활동과 산업민주주의 구상」, 『사이(SAI)』 19, 2015, 91-124면; 임인재, 「1960년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과 조지 오글」, 『畿甸文化硏究』 40-2, 2019, 141-169면 참조.

14) 이승훈 전도사가 1962년 3월부터 5개월간 인천판유리와 대성목재에서, 조문길 전도사는 1962년 6월-1967년 인천중공업에서, 조승혁 목사가 1962년 9월 1일-1964년 1월 4일 기간 대성목재공업에서, 조화순 목사가 1966년 11월부터 6개월간 동일방직에서, 유흥식이 1966년 1월 이천전기에서 노동했다. 조승혁, 앞의 책, 28-29면; 조화순 목사에 의하면 공장 노동 기간이 남자는 1년, 여자는 6개월이었다. 조화순, 『낮추고 사는 즐거움』, 도솔출판사, 2005, 131면. 한편 조지 오글 목사는 한국기계공업과 흥한방직에서 점심시간에 좌담회를 갖고 전도에 나섰다. 조승혁, 앞의 책, 27-28면.

15)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1961년 동구 화수동 183번지(현재 화도로66) 15평 초가집에 자리를 잡았다. 김도진, 「화수동과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작가들』 76, 2021, 211-212면;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시기별 단계별 산업전도 과정에 대해서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감리교 도시산업선교의 발전과 현황」(연도 미상), 「인천도시산업선교회 활동과정에 대하여」(1981년) 참조.

16)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전체적 방향」, 연도 미상.

17)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전용환 목사는 1975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에서 1970년대에 노동자, 빈민대중들의 자율적인 활동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전개하면서 자율적인 조직으로 노사문제분과위원회, 직장여성분과위원회, 주민향상분과위원회, 산업안전분과위원회, 신용협동조합 등의 조직을 만들었다고 서술했다. 전용환, 「지역사회 주민 권익을 위한 조직활동」, 17면.

활동 그리고 신용협동조합활동과 공동구매 사업을 전개했다.[18] 산우회는 공장과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평신도 중심의 선교활동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구로, '근로자 중심의 자주적 단결로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산업사회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고 자유 평화 사랑 정의를 중심한 클럽 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했다.[19] 산우회 산하에는 십여 개 그룹이 조직되었는데, 각 그룹은 친목 도모, 여성운동, 사회봉사 등 각기 다양한 취미, 봉사활동을 공유하는 10-2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20]

산우회 평신도 그룹의 주요 활동 내용 가운데 하나가 신용조합과 소비조합(공동구매) 운동이었다.[21] 대표적으로 1967년 10월 20일 '상부상조, 친목도모, 경제적 자립(저축)'을 목적으로 모인 산우회 평신도 그룹 15명이 이천전기신용조합을 결성한 사례를 들 수 있다.[22] 화수동 소재 이천전기공업(주) 노동자들로 조직된 이 조합은 인천지역에서 노동자들의 직장유대에 기반하여 조직된 신협으로는 처음이었다. 이 조합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오래 운영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이천전기신용조합은 조합원들이 산우회 소속 평신도그룹이었기 때문에 1970년에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그룹원들로 창립한 산우신협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후술하듯이 산우신협 조합원들의 대다수가 이천전기공업과 한국유리공업 근로자들인 점에서도 알 수 있다.

1970년대에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관련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해고당하고 감옥에 가고 실무자들도 감시받던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왜곡된

18)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소개와 활동」, 연도미상, 3면.
19) 「산우회회칙」, 1977년 1월,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산우회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문화부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재정은 각 클럽의 회비와 도시산업선교회 보조금으로 충당되었다.
20) 참고로 1975년경 산우회 산하 클럽은 넝쿨, 다이나마이트, 목립, 목화, 불사조, 비둘기, 삼성, 샛별, 원, 에덴, 자석, 차돌, 턴넬, 태양, 횃불 등 15개였다. 「산우회활동협의회」, 1975년 3월 19일,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산우회.
21)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소개」, 「자립기금 신청」, 연도 미상. 두 문건은 내용이 비슷하며 작성 시기는 내용으로 보아 1975년경으로 추정된다.
22)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산우활동협의회의 목적」, 연도 미상(1970년대 초로 추정). 이천전기공업(주)은 1956년 재일동포 서상록이 조선도시바전기(일제시기 조선도시바전업을 불하받아 설립)를 인수하여 이름을 바꾼 것이다. 문만용·임경택, 「주물기술자인 저자와 1960년대 한국 주물공업」, 『인천일기 1』, 지식과교양, 2017, 43-44면.

선전과 정보에 의해 도시산업선교회를 '위험한 곳'으로 알고 있었다.[23] 따라서 "소수의 지역주민들만 신용협동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후술하듯이 신용협동조합의 지역개발사업이 진전되면서 점차 조합 인근 지역주민들도 조합원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3. 공장노동자의 신용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1) 대성신용협동조합(1968년)

실험적 시도였던 이천전기신용조합 결성 후 6개월이 지난, 1968년 4월 12일 대성목재공업(주) 노동자들 27명이 모여 대성신협을 창립했다.[24] 그 창립을 주도한 이는 1963년 대성목재공업(주)에 산업선교를 목적으로 부임한 이국선 목사였다.

이국선 목사에 앞서 감리교계의 조승혁 목사가 약 1년 4개월 동안 대성목재공업주식회사에 노동자로 취직하여 산업전도를 시도했지만,[25]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는 전도활동 중 '교회가 산업사회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에 동참해야만 그들에게 관계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26] 교회가 "근로자의 통일을 위한 상징이요 권익을 지키는 유일의 기관인 노동조합의 운동에 대해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7]

조승혁 목사가 대성목재공업 산업전도에서 후속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이국선은 목포 중앙교회 목사로 있다가 인천으로 올라온 후

---

23)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감리교도시산업선교회의 발전과 현황」(연도 미상),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과정에 대하여」(1981).

24) 「제1차 정기총회회의록」 1968년 4월 12일. 참고로 대성신협은 2021년 12월 말 현재 조합원 5,291명, 자산 1,055억이다. 「자산연혁」, 『제54차 정기총회회의록』, 2022, 2면.

25) 조승혁, 「산업전도사업보고서(대성목재공업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참고로 1964년 무렵 대성목재 근로자의 수는 총 1,492명(남 1,156, 여 336명)이었다. 조승혁, 「산업전도사업보고서(대성목재공업주식회사를 중심으로)」.

26) 조승혁, 「산업전도사업보고서(대성목재공업주식회사를 중심으로)」.

27) 그는 현존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극히 미온적이며 어용화된 조합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고 파악했다.

1963년 6월 대성목재공업의 공장전도목사 겸 후생부장으로 취임하여 1975년 3월까지 산업선교에 임했다.[28] 그가 회사 산업전도실에 부임하게 된 것은 부사장 전택완 장로의 제안이 있었던 데다, 4.19혁명과 산업사회로의 변화를 겪으면서 공장을 목회의 장소로 새롭게 인식했기 때문이었다.[29] 이국선 목사는 1일 2교대제로 노동하는 근로자들 가운데 기독교 신자들을 모아 작업 시작 전에 예배를 하고 또한 회사 복리나 가사 관련 상담을 하면서 산업 전도의 터를 닦았다. 이후 1967년경 송림동 253번지에 동인천노동교회를 설립하고 교회 내에 동인천도시산업선교센타를 개관하여[30] 대성목재공업 노동자와 만석동 주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전개했다.

대성신협 창립의 계기는 기독교장로회 산업전도인천지구위원회 후원으로 대성목재산업전도목사실 주관하에 1967년 9월 25일-10월 1일 일주일 동안 열린 '제2회 종업원평신도 지도자교육훈련' 강좌였던 것 같다. 강좌에는 대성목재 근로자 총 17명(남자 10명, 여자 7명)이 참석했는데, 강사는 답동 천주교회 설리반 헨리코 신부, 인천산업전도회의 조지 오글 목사와 조승혁 목사(감리교), 선린촌의 최문환 목사, 인천성공회 김성수 신부 등 신·구교를 넘어 당대의 대표적인 종교인들이었다. 〈공장 전도의 과제와 실제〉(설리반 헨리코 신부), 〈산업전도와 인간관계〉(고재식, 산업전도회 실무자), 〈한국교회 전도의 체질 개선〉(김덕수 목사), 〈한국 노동조합의 역사와 과제〉(조지 오글

28) 이국선, 「동인천 도시산업선교회(기장편)」, 조승혁 외 지음, 『노동자와 함께』, 기독교대한감리회 도시산업선교중앙위원회, 1978, 79-90면;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대성목재산업전도 제2회 종업원평신도지도자교육훈련」(1967.9.25.-10.1); 이국선 목사, 「종교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해명과 공개사과 요청의 건」. 이국선은 1971년 어용노조를 갱신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29) 이진, 「제3의 치차(The third gear) 이국선 목사」, 이종전 편, 『기억하고 싶은 목회자들 I, 인천』, 아벨서원, 2021, 438-439면. 이진(인천 선민교회 목사)은 이국선 목사의 장남이다.

30) 동인천도시산업선교센타의 설립 비용을 지원한 이는 ㈜남양회장이자 목포영흥중고등학교 이사장, 목포유달교회 장로인 홍승기였다. 이국선 목사는 1974년 대성목재공업 인천공장에서 퇴임하면서 동인천노동교회를 기독교장로회 교회로 등록하고, 교회 이름을 同人教會로 개칭했다. 동인교회는 현재 대성신협 지점(동구 석수로 17, 만석동)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동인교회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활동으로 맞벌이 근로자를 위한 탁아실 운영, 의료복지 제공, 신용협동조합운동을 전개했다. 이진, 앞의 글, 443면; 이국선, 앞의 글, 86면, 89-90면.

목사) 등의 강연 제목을 통해 산업선교의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려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종파를 초월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31] 이 교육훈련 내용 중 주목되는 것은 최문환 목사의 〈산업전도와 신용조합〉이란 강연이었다. 그는 '협동조합은 무산자들의 단결된 경제적 활동이며 조합원의 빈궁한 경제문제를 해결하여 잘 사는 운동'이라며, 신용조합과 소비조합, 생산조합을 소개했다. 최문환 목사는 협동교육연구원의 교육과정을 1기생으로 이수한 후 그 지원을 받아 1963년 3월 26명을 규합하여 출자금 3,800여 원으로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했으며, 이후 1966년 11월 소비자협동조합, 1967년 1월 생산자협동조합을 조직했던,[32] 개신교계에서 가장 먼저 협동조합운동을 선도했던 인물이다. 이미 인천지역 가톨릭교회에서 답동신협을 비롯하여 여러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상황에서 최문환 목사의 구체적인 성공사례 소개는 이국선 목사와 대성목재공업 평신도 노동자들에게 강한 동기 부여가 되었던 것 같다.

대성신협의 창립 기반은 이국선 목사의 동인천노동교회였다. 창립 당시 사무실 소재지가 동인천노동교회(오늘날의 동인교회, 만석동 72-11)였고, 창립총회도 찬송, 성경 기도 등의 예배순서로 시작되었다.[33] 창립 이사장은 인천제일교회(예수교장로회) 장로로 대성목재공업 사무직 근로자인 노성호였다.[34]

---

31) 「대성목재 산업전도 제2회 종업원평신도지도자 교육훈련」(1967년 9월 25일-10월 1일).

32) 「소비자보호카르테 3」, 『동아일보』 1967년 10월 12일; 이희현, 「선린 협동촌과 동막 어촌계 견학기」, 『사회학연구』 8, 이화여대 사회학과, 1970, 41-44면; 이근원 외, 「선린협동촌」, 『사회학연구』 9, 1971, 80-81면; 김성도 장로(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선린촌), 「선린촌의 공동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농어촌부, 『교회와 농민: 선교편』, 양서각, 1986, 226-232면. 최문환 목사는 1951년에 함경북도 성진에서 피란하여 거제도를 거쳐 부산 사상에서 생활하다가 1954년 상경하여 천호동에 피난민 마을인 선린촌을 창설했다. 이후 도시계획으로 인해 1968년 광주군 동부읍 천현리에 제2선린촌을 건설하여 이주했다. 1969년경 선린신협은 조합원 104명에게 월 3% 금리로 대출사업을 실시했다.

33) 한국신용협동조합연합회, 「인가신청조합명단」 『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추가제출』(한신연 제73-127), 1973년 2월 26일; 『제1차정기총회회의록』, 1968년 4월 12일; 참고로 제2차 정기총회에서는 기도나 찬송가없이 '애국가 봉창'만 하고 개회를 선언했으나, 제3차 정기총회에서는 '기도,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봉창' 후 개회사가 있었다. 제4차 정기총회(1972.1.1.) 이후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묵념, 애국가 봉창 등 국민의례만 행하고 개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조합의 공동유대와도 연관된 것으로 처음 대성목재 내 기독교인으로 출발했으나 점차 비기독교인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조합의 유대를 강화했음을 보여준다.

1972년 재무부 법인 인가[35] 이후에는 적임자가 없어 이국선 목사가 이사장으로 추대되었다.

대성신협의 공동유대는 "①대성목재공업주식회사 從業과 센터에 관련 있는 자 ②지역사회 개발에 관심있는 자로 만석동 거주자 ③조합원의 직계가족"이었다.[36] 즉 조합원 자격은 동인천도시산업선교센타와 관련 있는 대성목재 근로자와 공장 소재지 만석동의 주민이었다. 그러나 창립기 조합원은 거의 모두 대성목재공업 근로자였다.[37] 1972년 법인 인가 추천서에는 "공동유대가 협의체를 중심으로 조직"이라 되어 있고, 업무구역은 대성목재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초창기 공동유대 범주와 같지만, 지역유대를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차후 대성신협이 지역개발사업을 강조하며 지역유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임원진은 이사(창립 시 5명, 1969년 1월 2차 정기총회에서 9명, 1970년 1월 3차 정기총회에서 7명으로 변경), 여신위원(3명에서 5명으로 변경), 감사위원(3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사진은 이사장, 부이사장, 회계, 서기, 평이사로 직책을 구분했으며, 여신위원은 위원장, 대부위원, 서기, 평위원으로 나뉘었다.[38]

---

34) 김성근 구술(2022년 4월 23일). 김성근은 1940년생으로 대성신협 창립 시 대성목재공업(주) PF과에 근무하면서 대성신협 여신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03년 5월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전택보는 함남 문천 출신으로 일본 고베상업고등학교 졸업 후 금융조합, 조선일보사에서 일하다가 1945년 10월 월남했다. 미군정청 理財課長으로 있다가 그만두고 1947년 天友社를 설립하여 무역업에 투신했다. 1954년 대성목재공업주식회사를 인수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참조.

35) 1972년 8월 1일 신용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 같은 달 17일에 법률 제2,338호로 공포되자, 법 시행에 따른 인가조합설립발기위원회가 10월 1일 열렸다. 이후 몇 차례의 준비모임 후 10월 22일 인가조합 총회가 개최되었다. 1973년 3월 재무부 인가 제3-29호로 인증되어 5월 1일 업무보고서를 재무부에 제출하고 6월 7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법인체가 되었다. 『신용조합회의록』, 1974년 1월 1일.

36) 「신용협동조합인가조서」(대성신협), 『신협설립인가철』,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비은행감독과, 1972(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039790)

37) 김성근 구술(2022년 4월 21일).

38) 『제2차 정기총회 회의록』, 1969년 1월 1일.

〈표 3〉 대성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수와 자산 추이(단위: 원)

시기	조합원수	누계자산(누계출자금)	순이익금(적립금)	배당금(배당율)
1968.4	27	(3,000)		
1969.1	114	(617,550)		
1970.1	193	698,863(626,097)		
1971.1	451		1,806,505(55,951)	130,554
1972.1	642	(4,150,014)	667,309(200,191)	467,118
1972.9	586	3,514,791	800,783	650,156
1973.12	629	6,491,801	1,389,354(141,910)	1,150,809(16%)
1974.12	569		3,238,625(710,178)	2,896,770(16.8%)
1975	726	(24,435,941)	4,632,508	(16.8%)
1977	1,215	약 2억		
1982.12	1,629	12,900,000		
2009.2	3,408*			

출처: 각년도 정기총회자료; 『제54차 정기총회자료』(2022. 1. 28); 「이사회보고」, 1971년 12월 27일; 이국선, 앞의 글, 90면

비고: *는 20세 미만 조합원 241명을 제외한 숫자임.

대성신협 조합원 수는 〈표 3〉에서 나타나듯이 1968년 4월 창립 당시 27명이었으나,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한 1969년 1월경 재적조합원은 114명(탈퇴자 4, 퇴사 14명)이었다. 1970년 1월에는 재적조합원 수가 193명으로 증가했다. 대성신협은 창립 이후 조합원 증가를 목표로 해마다 사업계획 시 신규조합원 목표를 설정했으며 '선교육 후가입'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1971년 12월경에는 조합원 가입연번이 898번(재적조합원)에 달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이루어진 조합원 증가와 함께 탈퇴자도 증가했다. 1972년 1월 정기총회 시 교도위원회 보고에서 탈퇴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탈퇴 이유에 관한 통계를 내야 한다고 할 정도였다.[39] 1974년 12월 말 조합원 연번호는 1,695번이었지만, 누적탈퇴자가 1,126명으로 실제 조합원은 569명이었다.[40] 조합 탈퇴의 이유는 대개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로 노동자가 퇴사했기 때문이었다.[41] 이에 총회에서 탈퇴자와

39) 탈퇴자가 1970년 103명, 1971년 171명으로 총 274명이나 되었다.

40) 「이사회보고」(1974.12.31), 『1975년 정기총회회의록』, 1975년 1월 2일.

41) 1960년대 한 때 10대 기업 중 하나였던 대성목재공업은 1969년 6월 부실정리기업체로 지정되어 은행 관리로 넘어가게 되자 5백여 명의 사무직 가운데 150명을 감원했다. 부실기업정리에서 벗어나 살아남은 이후에도 1976년경 재차 경영 부실로 자금난에 봉착하여 5천여 명의 직원들이 실업 위기에 처했다. 이후에도 회사가 매각되어 경영진이 수차례 바뀌었고 그때마다 구조조정이

제명자를 제외하고 실제 조합원수로 연번을 고치자는 안까지 제기되었지만, 연번호는 조합의 원칙이고 또한 조합의 연혁과 발전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번호 개정은 어렵다고 결론내렸다.[42]

〈표 4〉 연도별 각종 대출 건수와 대출금

기간	보통대부		출자범위대부		긴급대부		소액대부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68.8.4.-12.31.	43		9		2				54	245,200
1969	175		17		6				198	1,780,500
1972	392	8,979,700	181	2,279,500	6	60,000	849	1,607,450	1,428	12,926,650
1973									1,498	29,728,500
1974									1,847	47,386,600
1975									1,769	63,998,800

자료: 「여신보고서」(1972. 9. 30), 『결산총회의록』 1972. 10. 22; 『제2차정기총회회의록』, 1969. 1. 1; 『제3차 정기총회회의록』1970. 1. 1; 『신용조합회의록』, 1974. 1. 1

대부사업은 〈표 4〉에서 보듯이, 창립 초부터 보통, 출자범위, 긴급, 소액 네 가지 종류로 실시되었다. 이후 1973년에 조합원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고액대부인 '특별대부'를 신설했다.[43] 1968년 8월부터 12월 말까지 이루어진 1차년도 대부사업은 보통 43건, 출자범위 9건, 긴급 2건으로 총 54건, 24만 5,200원의 대출을 집행했다. 대출 용도는 김장 18건, 전세 5건, 부채 7건, 의류 구입 12건, 기타 22건으로 주로 생계 용도 대출이 많았다. 2차년도인 1969년에는 총 198건, 178만 5백 원의 대출을 실시했다. 용도는 부채 상환이 가장 많았고, 물품 구입, 가사, 방세, 학비, 치료비, 집수리, 월동자금, 기타, 차비 등이었다. 1972년부터 대부 건수가 1,42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1973년 이후에는 대출건수보다 대출 총금액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1973년에 신설한 특별대부로 인해 고액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잇달았다. 「대성목재 대대적 감원선풍」, 『조선일보』 1971년 3월 27일; 「5천여 직원 失職위기」, 『매일경제』 1976년 5월 29일.

42) 대성신용협동조합, 『총회회의록』, 1975년 1월 2일.

43) 『신용조합회의록』 1974년 1월 1일.

초기 대부이자율은 월 2부(2%)였는데 1971년에 월 2부 5리(2.5%)로 올리고, 소액대부는 종전과 같이 월 3부(3%)로 유지했다.[44] 1960년대 후반경 신용조합의 대출 금리는 대개 월 1.5-3%(연 18-36%)여서 시중 고리대 평균 이자 월 6.0%(연 72%)의[45] 1/4 내지 1/2 수준으로 매우 저렴했다.

대부최고한도액은 8만 원이었으며, 상환기간은 12개월이었다. 3만 원 이상 대부할 경우에는 그 반액이 출자금이나 예금으로 저축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그 반액의 70%가 3개월 전에 저축되어 있어야 하고 대출당사자가 공장에 2년 이상 근무했거나 보증인이 3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등 고액대출규정은 까다로운 편이었다.[46] 대출사업은 조합원들에게는 큰 혜택이었으니, 대출을 통해 10년 동안 해결한 고리채가 1,970건, 총액 2억 258만 원에 달했다.[47]

대부 신청이 증가하면서 여신업무가 폭증함에 따라, 여신위원만으로는 사무처리가 어려워 1970년 1월 정기총회 결정에 따라 유급 사무원을 두었다.[48] 그러나 유급사무원 1명이 은행 입출납, 회계를 처리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대기가 길어져 불편한 데다, 1974년에 적금, 예탁(보통예금, 정기예금) 업무 등 신종 업무가 시작되면서 유급회계원을 증원했다.[49]

한편 조합 확장 과정에서 교도사업의 방향과 공동유대가 변화되기 시작했다. 변화의 조짐은 1975년 조합원 1천 명 증가와 출자금 3천만 원 달성을 통한 조합 확대 방안으로 동인천산업선교센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영세한 지

---

44) 1972년 8.3경제특별명령에 따른 조치로 대부이자를 2부 5리(2.5%)에서 다시 2부(2%)로 인하했다(「이사회보고」(1972.9.30.)『결산총회의록』1972년 10월 22일). 한편 1974년에 시작한 예탁금(보통예금)의 이자율은 연 2.4%로 은행의 연 1.8%보다 높았으며, 정기예탁금 이자율은 1년 만기의 경우 13.2%로 은행과 비슷한 이자였다.「감사보고서」『1975년도 정기총회회의록』1975년 1월 2일.

45) 신협중앙회,『한국신협운동50년사』, 2011, 120면. 당시 영세농민들은 월 10%(연 120%)의 고리채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전국 주요 기업체의 91%는 월 5-6%(연 60-72%) 이자의 사채를 이용하고 있었다. 정부가 긴축정책을 실시한다든가 하여 자금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월 15%-30%(연 180-360%)의 달러 이자도 성행했다.「또 高利債 성행」,「91%가 고리채 이용」,『부산일보』1969년 7월 6일, 1967년 10월 5일;「고리대 횡포 심해, 月 최고 3할까지」,『경남매일신문』1968년 6월 16일.

46)「이사회 보고」(1971년 12월 27일),『제4회 총회회의록』

47) 이국선, 앞의 글, 90면.

48)「1970년 정기총회회의록」, 1970년 1월 1일.

49)「신용조합회의록」1974년 1월 1일.

역주민을 조합원으로 우선 가입시키는 지역개발1단계사업에서 나타났다.[50] 1976년 1월 2일 정기총회에서 이국선 이사장은 "대성신협에 대해 대성이라는 글자 때문에 대성목재와 연결시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하고 대성신협의 모태는 동인천산업선교센타라고 강조했다. 실제 창립 초기에는 조합원이 대부분 대성목재공업 근로자였지만, 이후 타 공장 노동자로 동인교회에 다니면서 대성신협에 가입한 이들이 생겨났다.[51] 이에 신용협동조합이 '대성목재공업 노동자 중심에서 벗어나 이제 더 넓은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새롭게 재출발해야' 한다고 천명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교도사업의 방향을 지역개발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종래 대성목재공업의 직장유대에 치중했던 공동유대를 인근 만석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유대로 확장하려는 시도였다.

조합의 교도사업 방향전환과 공동유대 변화에 롤모델이 된 것은 부민신용조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6년 정기총회회의록에서는 인천시 중구 답동 송현교회 교인과 가족, 상인천 거주 기독교인을 공동유대로 하는 부민신용협동조합(1973년 6월 창립)이 창립 후 채 3년이 안되어 자산 1억이 넘게 성장한 것은 지역사회개발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52] 이후 사업계획에서 "지역사회개발이 대성신협의 중흥을 다지는 핵심적 과제"라고 천명했다. 1991년 발간된 『신협운동삼십년사』에 조합의 공동유대가 '지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70년대 말 이후 1980년대에 내용상으로는 지역유대조합으로 전환된 것 같다. 그러나 '인천시 동구'란 지역유대로 정관을 개정한 것은 2009년에 이르러서였다.[53]

한편 대성신협은 재무부 인가를 받은 후 소비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이국선 이사장은 동인천산업선교센타 1층에 구판장을 열고, 목포상고 출신 김정

50) 「75년도사업계획서」, 『정기총회자료』 1975년 1월 2일.
51) 이국선, 앞의 글, 87면.
52) 대성신협의 이익배당률이 16.8%인데 비해 부민신협은 20%였다. 『정기총회회의록』 1976년 1월 2일; 부민신협(동구 송현동 97)은 1973년 6월 17일 33명의 조합원으로 창립되었으며, 공동유대는 송현성결교회 신자였다. 「신용협동조합인가조서」 「부민신용협동조합 추천서」, 1973년 8월 20일.
53) 「정관」. 1991년 『신협삼십년사』에 대성신협의 공동유대가 지역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오경문 전무는 이는 오류라고 지적했다. 오경문 구술, 2022년 4월 11일.

모에게 설립과 운영을 일임했다.[54] 그러나 이용자가 많지 않아 몇 달 못 가 폐점하고 말았다. 상품 구입과 판매, 보관과 재고 처리, 적정한 가격과 이윤 책정 등 여러 방면으로 경영 기술과 보조 인력을 요하는 소비조합 운영이 당시 대성신협 상황에서는 무리한 사업이었다.

2) 인천중공업신용협동조합(1969년)

가장 전형적인 직장유대를 기반으로 설립되어,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협은 인천중공업신용조합(1970년 인천제철신협, 1978년 현대제철신협)이다. 조합은 1969년 6월 23일 29명(31명?)이[55] 공장 식당에 모여 창립했다. 창립총회 참석자는 압연과, 제판과, 제강과, 품질과, 업무과, 공무과, 서무과 등 각 과와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었다.

신용조합 창립을 처음 제안하고 주도한 이는 창립총회에서 사회를 보고 초대 전임 부이사장을 맡은 백창섭이었다.[56] 그는 일제시기 광복군 출신으로 가톨릭 신자였는데, 1968년경 협동교육연구원에서 교육을 받은 후, 역시 가톨릭신자인 정해영 등과 함께 1년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창립했다.[57] 한국신용조합연합회 전무 곽창렬이 축사에서 “작년에 신용조합 관계로 이곳에서 몇일간 여러분들을 뵙고 소식 없다가 오늘 창립하는 이 자리를 대하고 보니…”라고[58] 하는 것으로 보아 조합 설립 준비는 1968년부터 이루어졌으며,

54) 김성근 구술(2022년 4월 21일)

55) 참석회원이 29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참석회원명부에는 31명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신용조합창립총회회의록』, 1969년 6월 23일.

56) 정해영 구술(2022년 2월 15일, 3월 15일). 정해영은 1936년 경북 영주 출생으로 1960년 12월경 대한중공업공사에 입사했으며, 인천중공업신협 창립총회 시 평이사로 선출되었다. 1969년 인천중공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1992년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이 창당한 통일국민당의 창당발기인이었다. 현재 철우기업(주)을 운영하고 있다.

57) 정해영 구술(2022년 2월 15일, 3월 15일). 백창섭(1916-2004)은 평안북도 영변 출생으로 1938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1942년 4월 광복군에 입대했다. 1990년 국가보훈처로부터 애국장으로 포상받았다(「독립유공자공적조서」, 공훈전자사료관 참조). 인천제철신협은 백창섭의 정년퇴임 시 “신용조합 육성에 노고와 공이 많아 그 공을 높이 찬양하기 위하여 기념품(금 넥타이핀)을 마련”하여 증정했다. 『총회회의록』 1971년 7월 16일; 『임원회회의록』 1971년 7월 29일.

58) 「신용조합 창립총회 회의록」, 1969년 6월 23일. 곽창렬은 신용협동조합 교도원과 각 신협 임

협동교육원에서 강사를 파견하여 창립준비에 관해 교육하는 등 지원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신용조합 고문 사무엘 미첼이 참석하여 축사를 할 정도로 대규모 '철강공장에서의 신협 탄생'은 한국 신용협동조합운동사에서 주목할만한 사건이었다.

인천중공업신용조합의 공동유대는 직장이었다. 원래 정관 원안 제5조에 "노조 조합원만이 신용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창립총회에서 '노동조합 미가입자라도 신용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되었다. 1969년 12월 인천중공업이 해체되어 인천제철에 합병됨에 따라[59] 1970년 1월 '인천중공업신용조합'을 '인천제철신용조합'으로 개칭했으며, 조합원 가입자격도 '인천중공업 종업원'을 '인천제철 종업원'으로 개정하고 단서는 삭제했다.[60]

신용조합 가입자격을 당초 '인천중공업 노동조합원'으로 설정했던 것은 창립 주도세력이 인천중공업노동조합[61]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대 이사장도 당시 노조 위원장인 장동찬이 맡았다.[62] 그러나 조합의 실질적인 운영을

원들을 위한 참고서로 1967년 『신용협동조합강사교재』를 발간하기도 했다.

59) 인천중공업(주)은 대한중공업공사(1938년 설립된 조선이연금속 인천공장이 적산으로 귀속되어 1948년 대한중공업공사로 개칭, 1953년 국영기업으로 설립)가 1962년 11월 개칭된 것이다. 1969년 6월 정부가 철강산업 육성방안으로 인천중공업(주)과 1964년 설립한 인천제철(주)의 합병을 추진하여 같은 해 12월 31일 양 사의 합병계약이 체결되었다. 「호소문 '인천제철주식회사와 인천중공업주식회사합병계약서'」(1969.12.31); 『신용조합임원위원회의록』 1970년 1월 21일; 당시 불입자본금을 비교해보면 인천제철 4억 3천만 원, 인천중공업 16억 8천만 원으로, 인천중공업이 훨씬 규모가 컸다. 1978년 인천제철을 민간에 불하하자, 현대그룹이 인수하여 현대제철로 社名이 바뀌었다.

60) 「신용조합 임원위원회의록」, 1970년 1월 21일. 1972년 10월 22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법인 조합 설립 시 작성한 정관 10조 조합원자격에는 "인천제철 종업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인천제철신용협동조합, 「정관」, 2면). 인천제철신협은 1972년 12월 30일 법인 조합으로 인가받았으며, 법인 설립 등기는 1973년 3월 20일자로 이루어졌다. 『인가서』 1972년 12월 30일.

61) 인천중공업노동조합은 1964년 단체협약 이행요구 쟁의, 그리고 1966년, 1968년, 1969년에 임금 인상 쟁의를 제기하는 등 수차에 걸쳐 경제투쟁을 전개한 강성 노조였다. 따라서 자본 규모가 훨씬 큰 인천중공업이 해체되어 인천제철에 합병되는 과정에서도 퇴직금, 고용 승계 등을 둘러싸고 노조의 반발과 투쟁이 상당히 강했다.

62) 『신협운동20년사』에는 제1대 이사장이 백창섭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창립총회회의록」에는 장동찬으로 되어 있다. 노동쟁의에 앞장서 투쟁했던 장동찬은 1973년 1월 해고되어 한국노총 교육국 차장으로 있다가 도시산업선교회와의 관계로 노총 간부직에서 쫓겨나고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고문당했다. 「내가 죽어야 노동자가 산다던 장동찬 위원장-조승혁 목사가 기억하는 노동조합운동가 ②」, 『에큐메니안』 2005년 9월 16일; 「인천제철 장동찬 노조지부장 해고」, 1973.

총괄했던 이는 전임 부이사장 백창섭이었다.[63] 따라서 초창기 임원회의는 대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렸다.

〈표 5〉 인천중공업신용협동조합의 발전 추이

시기	조합원수	출자금(천 원)	자산총액(천 원)	대출금(천 원)
1969.6	29			
1969 말	328	401	415	415
1970	306	1,469	2,372	2,204
1971	340	3,029	3,975	3,923
1972	570	6,338	8,885	8,755
1973	630	11,513	17,195	16,734
1974	930	21,834	33,317	32,733
1975	1,300	40,361	64,551	60,958
1976	1,402	60,419	123,086	98,462
1977	1,690	109,081	274,634	219,977
1978	2,069	201,879	501,265	396,651
1979	1,963	252,308	662,148	536,438
1980	2,135	371,055	884,764	667,296
1990	2,741	2,707,250	6,159,862	5,772,752

출처: 「연도별 조합 성장 현황」, 『任員會會議資料』(1986. 1. 29), 9면; 「연도별 조합 성장 현황」, 『제18차 정기총회』(1991. 2. 8), 15면.

인천중공업신협 조합원 수의 추이에 대해 살펴보자. 〈표 5〉에서 나타나듯이, 창립 6개월 후인 1969년 말 조합원수는 328명이었다. 1969년 6월경 인천중공업(주) 노동조합원이 총 950명이었으므로[64] 노조원의 1/3이 가입한 셈이었다. 회사합병문제로 불안정한 분위기이고 창립 후 짧은 기간임을 감안하면 노조원들의 신용조합 참여율이 꽤 높았다고 할 것이다.

1972년 10월경 신용조합의 법인 인가를 위해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조합원증가계획'으로 1973년 1천 명, 1974-1975년 각 300명씩 총 1,600명 증가를 목표로 제시했다. 인천중공업이 인천제철에 합병된 이후이므로 조합원 증가 폭을 크게 설정했던 것 같다. 이 시기 임원회의에서는 매번 조합원 증가를 위해 임원들이 적극적인 교도사업을 전개하자고 결의했다. 그 결과 비록 목표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조합원수는 1974년 930명,

63) 임원진은 이사장, 전임부이사장(1명), 평이사(2명), 감사(2명), 여신위원(3명)으로 구성되었다.
64) 「인천중공업 조합원 1일교육프로그램 협조의 일」, 1969년 6월 4일.

1975년 1,3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조합원들의 참여 의지도 높았으니, 예를 들어 1973년 1월 총회 당시 재적조합원 570명 중 참석자가 410명으로 출석율이 72%에 달했다.

조합의 대부사업은 창립 후 약 3개월이 지난 1969년 10월부터 진행되었다.[65] 대부의 종류는 보통대부(출자금 초과), 출자금범위내 대부, 긴급대부(조합원과 그 직계존비속의 재해와 사고) 세 가지였다.[66] 대출 최고한도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었다. 이는 출자금과 자산이 얼마 되지 않는 창립 초기에 대출한도액을 낮게 설정함으로써 다수의 조합원에게 대부 기회를 주려는 정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탁금 및 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100분의 10 한도액에서 예외로 했으니, 이는 예금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67]

대부 자격은 가입 후 3개월 경과자이며, 臨時工인 조합원은 정규노동자인 조합원의 보증하에 대부할 수 있었다. 대부한도는 출자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었으니, 출자금 5백 원-2천 원 미만일 경우 5천 원을, 2천 원-5천 원 미만일 경우 1만 원을, 5천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1973년 초 규정을 고쳐 대부한도액은 출자금의 3배로 일괄책정하되 단 긴급대부나 잉여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68]

상환기간은 대부금액에 따라 기간을 달리했으니, 5천 원이면 3개월, 1만 원이면 5개월, 2만 원이면 7개월로 정했다. 그러나 상환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여론을 고려하여 1970년 1월경 5개월, 7개월, 10개월로 연장했다. 상환기간이 짧은 것은 대출운용자금이 적은 상황에서 여러 사람에게 대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자본의 회전 주기를 단기로 설정한 것이다. 대출이자는 출자금 범위 내 대출은 처음 월 1.5%(연 18%)였으나 1972년 1월 이후 다른 대출과 같이 월 2%로 변경되었다.[69]

---

65) 「제2차 신용조합임원회의록」, 1969년 9월 30일.
66) 긴급대부는 조합원 2인의 보증을 얻어서 질병의 경우 1만 원, 천재지변의 경우 1만 원을 대출할 수 있었다. 「신용조합임원연석회의록」 1969년 6월 27일; 『신용조합임원회의록』, 1969년 8월 22일.
67) 「정관」 제63조(대부의 종류), 제64조(대부의 제한), 제65조(대출금의 최고한도), 15-16면.
68) 『이사회회의록』 1973년 1월 18일.

당시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격심한 인플레로부터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소비자협동조합이 신용조합보다 긴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소비조합보다 법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는 신용협동조합을 먼저 설립하고 그 부대사업으로 구판사업을 실시하려는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70] 실제 일부 신용협동조합의 구판사업은 신규조합원을 증가시키고 기존 조합원의 참여도를 높이는 유인력으로 작용했다.[71] 인천중공업 노조가 주도한 인천중공업신용협동조합도 설립 초기부터 주요 사업의 하나로 소비조합 설립을 추진했다.[72] 1969년 12월 초 임원회의에서 소비조합문제를 신년도 정기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모색하기로 결정했는데, 별 진전은 없었다. 1970년 12월 임원회의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재결의했지만,[73] 이후에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은 없었다. 1972년 10월경 법인 조합 인가를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는 공동물품구매사업과 각종 보험사업을 제시했는데, 이에 따라 1973년 4월 임원회의에서 신용조합 임원의 소비조합 발기인화, 조합 설립 비용의 조달 방안에 대해 진전된 토의가 있었다. 그러나 제반 사정이 여의치 않았는지 7월경에 이르러 소비조합 설립을 무기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74]

1976년 2월 초에 이르러 마침내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신용협동조합 구판장을 개장했다. 석 달 후인 5월에는 세탁소, 이후 9월에는 구두수선소도 개소했다.[75] 신용협동조합 구판사업은 생활필수품을 구입하여 조합원에게 염가판매하는 것으로 세무서에 영업자납세신고도 하고 본격적으로 영업했다.[76] 임원회의에서는 매번 신용조합 사업과 함께 구판사업 부문에 대해 보고

69)「임원회의록」1972년 1월 16일.
70) 諸禧雨,「勞組의 信用協同組合活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세미나, 1976, 110-111면.
71) 예를들어 1970년 11월 설립된 중앙우체국신용협동조합은 1976년 3월 말 조합원수가 180여 명이었으나 이 해 4월경 구판사업을 실시하면서 석 달이 채 안 된 6월경 600명으로 증가했다(제희우, 위의 글, 112-113면).
72)「이사회회의록」1973년 4월 20일, 1973년 5월 9일.
73)「임원회의록」1970년 12월 30일.
74)「이사회회의록」1973년 7월 19일
75)「연혁」,『임원회회의자료』, 1986년 1월 29일, 2면;『信協運動二十年史』, 839면.
76)「영업자납세번호증명원」, 1976년 9월 2일

하고 토의했다.[77] 구판장 사업이 활발하게 되자 기존 신협 직원 담당만으로 부족하여 전임직원 발령과 함께 1명을 더 신규채용했다.[78] 판매 품목은 주로 설탕, 식용유, 라면, 비누, 화장품 등 일상필수품이었으며, 간혹 유명브랜드상품을 위탁판매하기도 했다. 한때 카세트 등 일부 간단한 전자제품도 판매했으나 곧 중단하고 품목을 생활필수품으로 집중했다.[79] 1983년도 매출액이 약 3억 2,867만 원이었으니, 조합원들의 구판장 이용이 매우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80] 그러나 순이익금이 455만 2,156원에 그쳐 구판장 직원의 월차보상금과 잔업식대 등의 예산부족액은 전용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86년도의 사업 순이익은 제로였다.[81] 이는 판매이윤을 남기지 않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싸게 공급한다는 가격 정책의 결과였다. 신용조합 미가입자라도 이용가능한 구판장사업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3) 산우신용협동조합(1970)

산우신용협동조합은 1970년 7월 3일 창립되었다.[82] 창립을 주도한 주체는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였는데, 창립 실무를 담당하고 준비한 이는 1969-1972년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간사로 일했던 정양숙(정마리안느)이었다.[83] 그는 1967-1968년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회장을 지낸 후 노동운동에

77) 예컨대 1986년도 사업계획에서는 '구판장 담당직원에게 책임감을 고취하여 상품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매분기별로 시장조사 및 타조합과의 비교조사를 통해 적정가격으로 판매하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도록 하며, 수시로 필요한 상품은 판매위탁으로 보급한다'고 제시했다. 「임원회회의자료」, 1986년 1월 29일, 29면.

78) 「제3차 정기임원회회의록」, 「임원회회의자료」, 1983년 3월 10일.

79) 「1983년도 임시임원회의록」, 1983년 1월 27일; 「1983년도 제2차 정기임원회 회의록」, 1983년 2월 16일; 「제5차 임원회회의록」, 1983년 6월 16일. 그러나 이후에도 특정 브랜드의 텔레비젼을 판매하기도 했다. 「정기임원회회의록」, 1983년 9월 8일.

80) 「구판장결산서」(1983년도), 8면

81) 「86년도 잉여금 처분예상」, 『임원회회의자료』, 1986년 1월 29일, 45면. 1990년도 구판사업 순이익은 7,571,680원으로 신용사업 순이익금 413,454,908원의 1.8%에 해당했다. 「'90년도 잉여금처분(안)」, 『제18차 정기총회』, 1991년 2월 8일, 34면.

82) 『산우신용협동조합 창립1주년 기념식』, 1971년 7월.

83) 이민우 구술(2022년 7월 2일). 이민우(1955년생)는 1982년 이후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노동간사, 일꾼노동문제자료연구실 실장으로 일했으며, 역사교사로 봉직하다 정년퇴임했다.

투신한 가톨릭 신자로,[84] 가톨릭교단과의 연계로 신용협동조합운동에 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창립 초기 조합 사무실은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내에 있었으며, 이후 사무실의 이동(화수동 183번지에서 1992년 송현2동 66번지 196호로 이전)도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공간적 변화와 동일했다.[85] 또한 '산우'란 조합 명칭도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산하 '산우회'에서 가져온 것이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신협을 조직했음에도, 앞의 대성신협과 달리, 총회 시작 시 국민의례만 실시하고 찬송 등의 종교적 의례는 전혀 없었다.

산우신협의 슬로건은 '자조 자립 자주'였다. 창립 정관 제3조에서 신협의 목적과 사업으로 '①조합원에게 규칙적인 저축을 장려하고 비축과 생산의 목적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저리로 융자한다 ②조합원에게 조합 자금을 상호이익을 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③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라고 명시했다. 이후 법인조합으로[86] 인가 시 산우신협의 목적에 대해 "조합원의 저축심을 함양하고 조합 자금의 민주적 관리와 활용으로 조합원의 자질 향상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간명하게 수정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①조합원의 예탁금 출자금 및 적금의 수입, ②조합원에 대한 자금 대출, ③조합원을 위한 공제료 등의 대리수납 ④조합 여유자금의 외부 투자 ⑤자금의 차입 ⑥조합원을 위한 교육 및 지역사회개발사업 ⑦조합원을 위한 각종 유가증권 귀금속 및 서류의 보호예수 업무 ⑧전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업무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명문화했다.[87]

---

84) 정양숙(1939-2016)은 1970년대에 한때 이스라엘에서 협동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해 수학한 적이 있으며, 1980년 광주 5.18의 진상을 알린 혐의로 계엄사에 체포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986-1994년 한 살림의 초대이사장과 이사를 역임했다. 「위령기도를: 정양숙 전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 여자회장」, 『가톨릭신문』 제 2990호, 2016년 4월 17일; 「계엄사가 고문한 '정마리안나'를 아시나요」, 『오마이뉴스』 2021년 5월 18일.

85)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1992년 9월 9일, 『1992년 2권 사업자등록신고 및 정정신고서철』,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1992

86) 1972년 12월 30일 인가번호 3-13으로 재무부로부터 인가받았고 1973년 3월 20일 등기를 완료했다.

87)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1992.9.9.), 『1992년 2권 사업자등록신고 및 정정신고서철』,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1992.

정관 제6조에 의하면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금 5백 원과 출자금 1좌(5백 원) 이상을 불입해야 했다.[88] 조합원 자격은 ①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내의 각 기관과 관계있는 그룹 회원 ②만14세 이상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그룹 회원이었다. 이후 ①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내의 각 기관과 관계있는 그룹 회원 ②조합원 2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로 바뀌었다. 산우신협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내 각 공장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직되었다. 1972년 12월 조합 인가 때에는 공동유대가 '협의체'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인가조합 대성신협이 '공동유대가 협의체를 중심으로 조직'했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공장 노동자 이외에 지역주민도 산우신협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산우신협의 창립 당시 조합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 〈표 6〉에서 보듯이 1972년 12월 30일 조합 인가 당시 조합원수는 50명이었으며, 1978년경에는 300여 명이었다.[89] 1982년 6월경 조합원수는 279명이었는데, 거주지별로 구분해보면 동구 화수1동과 2동 68명, 송림동 28명, 만석동 11명, 송현동 16명, 창영동 1명, 화평동 5명, 남구 74명, 북구 17명, 중구 21명, 기타 37명으로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위치한 동구 화수동 일대 주민이 많았다.

〈표 6〉 산우신협의 조합원 수와 자산 (단위: 원)

시기	조합원수	자산(출자금)	순이익금
1972.10.30	251	4,080,749(4,706,791)	567,238
1978	300여 명	30,000,000	
1980		52,924,000	
1981.12	370	75,500,000	8,767,272
1982.6	279	86,000,000(64,481,357)	

출처: 「신용협동조합활동보고」(1972.10.30); 조화순,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감리교)편, 기독교대한감리회 도시산업선교중앙위원회, 『노동자와 함께- 산업선교와 노동자인권』, 1978, 100면; 『1982년 정기총회회의록』 (1982.2.15); 『이사회 구성 및 조합원 현황과 지역분포도』(1982.6).

88) 『정관』 제6조

89) 「인가조합명단」, 『신협설립인가철』 1973년 1월 5일; 조화순,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감리교)편」, 기독교대한감리회 도시산업선교중앙위원회, 『노동자와 함께-산업선교와 노동자인권』, 1978, 100면.

1980년대 초 산우신협의 조합원은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만석동),[90] 이천전기공업주식회사(화수동) 근로자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1982년도 이사진이 한국유리공업의 자재계, 동력과, 공작실 근로자와 이천전기공업의 변전실, 분석실 근로자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91] 그러나 창립 당시에는 도시산업선교회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동일방직공장(만석동) 근로자들도 당연히 참여했을 것이며, 이후 1974년 6월에 직장유대 조합인 동일방직인천공장신용협동조합을 별도로 조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산우신협은 신규조합원의 모집을 위해 '증모강습회'를 개최했다.[92] 이 강습회는 조합에 가입했으나 교육을 받지 않은 조합원도 함께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이었다. 1971년 2월 강습회의 교육 프로그램은 '신용협동조합의 이념과 역사' '조합원이 받는 혜택' '신용협동조합 운영관리' 등이었다. 구체적인 강좌 제목은 '신용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신용협동조합운동의 발자취' '신용협동조합의 역할' 등이었다.[93] 또한 '소그룹운동과 협동운동의 연대활동' '신협의 정의와 역사 그리고 계통조직' '조합원의 혜택과 신협 성장의 4단계' '신협의 여수신 업무와 자금안전관리' 등의 강좌를 교육하기도 했다.[94] 산우신협은 협동교육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지도자강습회에도 사람을 파견하여 과정을 이수하게 했다.[95]

대부의 종류는 긴급, 소액, 출자금범위내, 보통 등 네 가지가 있었다.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1970년대 대출상황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데, 1981년도 대출은 총 153건에 6천 3백 87만여 원이 집행되었다.[96]

1978년 동일방직사건과 전두환 정권 수립 이후 탄압이 심해지면서 인천

90) 1957년 최태섭, 이봉수 등이 창립했으며 당초 명칭은 인천유리공업(주)이었다. 1998년 한글라스로 회사 명칭을 바꾸었다. 만석동 2의 6번지에 있었던 인천 공장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91) 『이사회 구성 및 조합원 현황과 지역분포도』, 1982.6. 참고로 조합 지도부는 이사회(9명의 이사)와 교도위원회(3명), 감사위원회(3명), 여신위원회(3명)로 구성되었다.
92) 산우신용협동조합 교도부장 유정식, 「산우신용협동조합증모강습회」, 1971년 2월 17일.
93)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조합원교육재료-약한 것을 강하게」, 날자 미상.
94)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산우신용협동조합 교육안내」, 날자 미상.
95) 「신용협동조합지도자강습신청서」, 1972. 9.
96) 「1982년도 정기총회」 1982년 2월 15일.

도시산업선교회는 노동운동이 거의 불가능해졌고 지역운동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97] 그리고 노동자들이 위축되면서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산우신협은 급속하게 쇠퇴했다. 1982년 8천 6백여만 원이던 자산은 1996년 1월 51만여 원으로 감소되었고, 결국 산우신협은 인근 지역조합인 ~ 송림동신협(현재 송림신협 송현지점, 송현동 56-211)에 합병되고 말았다.[98]

4. 맺음말

1960년대 말 인천지역 신용협동조합운동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즉 종래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한 단체(교회)유대에 기반을 둔 조합 설립에서 나아가 공장노동자의 직장유대를 기반으로 하는 조합 설립이 새로운 흐름으로 대두되었다. 공장노동자의 신용협동조합 설립은 노동운동의 전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1960, 1970년대 인천지역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감리교계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였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선교활동 방향을 구상하면서 운영위원회 밑에 신용조합위원회를 두어, 노동자들의 고리채문제 해결과 경제적 자립 도모를 지원하는 신용협동조합 조직을 계획했다. 산우회 평신도그룹 15명은 1967년 10월 이천전기신용조합을 결성했는데, 이는 인천지역에서 공장노동자들로 조직된 최초의 신용협동조합이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이후 1968년 4월 대성목재공업(주) 공장전도목사 겸 후생부장인 이국선 목사(기독교장로회)가 공장노동자를 규합하여 대성신용협동조합을 창립했다. 1975년 조합 확대 방안으로 동인천노동교회의 동인천산업선교센터와 관계를 맺고 있는 만석동 지역주민을 가입시키는 지역개발1단계사업을 시작하면서 점차 직장유대에서 지역유대로 전환했다.

1969년 6월 가장 전형적인 직장유대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50여 년이

97) 이민우 구술(2022년 7월 2일).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선교에서 지역주민 중심 선교로 활동방향을 전환하면서 민들레어린이선교원을 개원하고, 건강진료사업, 직업보도사업 등을 전개했다. 「인천도시산업선교활동보고」, 1980년대 초로 추정.

98) 합병 당시 자본금 총액과 합병 시기는 익명의 송림신협 실무자가 확인함.

지난 지금까지도 직장유대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합은 인천중공업신용협동조합이다. 조합 창립을 처음 제기하고 주도한 백창섭은 가톨릭 신자로, 1968년경 협동교육연구원에서 교육받은 후 1년 정도 준비 과정을 거쳤다. 조합 가입자격은 당초 노동조합원으로 제한되었으나 창립총회에서 노동조합 미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이는 노동조합이 인천중공업신용조합의 조직을 선도했기 때문이다. 1969년 12월 인천중공업(주)이 해체되어 인천제철에 합병됨에 따라 1970년 1월 '인천제철신용조합'으로 개칭했다.

1970년 7월 창립된 산우신용협동조합은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감리회)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창립을 주도한 이는 도시산업선교회 간사로 가톨릭 신자인 정양숙이었다. 조합원은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산하 산우회의 각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던 한국유리공업(주), 이천전기공업(주), 동일방직(주) 노동자들이었다. 1978년 동일방직 사건과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인천도시산업선교회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으로 노동자들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조합도 쇠퇴하여 1996년 인근 송림신협에 합병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인천지역 공장노동자의 신용협동조합운동은 개신교의 대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선교 그리고 노동조합운동과 밀접한 연계 하에 이루어졌다. 주목할 점은 조합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백창섭(인천중공업신협), 정양숙(산우신협)은 모두 가톨릭신자로 협동교육연구원의 교육과 지원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그만큼 1960-1970년대 신협운동의 확산에 협동교육연구원이 직간접적으로 크게 역할했음을 의미한다.

이들 조합은 발전과정과 경로에서 차이를 보였다. 대성신협은 지역유대조합으로 바뀌었고, 인천중공업신협은 기업주가 여러 차례 바뀌었음에도 오늘날까지 직장유대를 유지하고 있다. 대성신협이 지역개발사업에 적극 나서면서 지역유대로 전환하게 된 데에는 합판산업의 경기 악화와 부실한 기업 경영에서 기인한 노동자의 해고, 퇴사로 말미암아 직장유대가 약화되고 조합 운영에 기복이 심했던 점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양 신협의 발전과정에서 경제적 여건이 주요 변수였다면, 산우신협에는 정치적 상황 변수가 크게 작용했다. 산우신협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노동운동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조합원들이 위축되게 되어, 결국 인근 지역조합에 합병되고 말았다.

이 시기에 이들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제공한 협동금융의 혜택은 대단한 것이었다. 대개 월 2%(연 24%) 내외 금리로 실시한 대출사업은 조합원을 월 6%(연 72%) 이상인 고리채의 늪으로부터 구제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 해주었다.

▮ 참고문헌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에큐메니안』
『부산일보』
『경남매일신문』
『信協運動20年史』, 신용협동조합연합회 , 1980.
『信協運動三十年史』, 신용협동조합연합회, 1991.
『한국신협운동50년사』, 신협중앙회, 2011
『信協釜山二十年史』,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부산시지부.
「대성신협 창립총회회의록」, 1968년.
「대성신협 총회회의록」, 1969-1975년, 1977년, 1982년, 2009년, 2022년.
대성신협, 「정관」.
인천중공업신용조합, 「신용조합 창립총회회의록」,1969년 6월 23일.
「인천중공업신용조합임원회의록」, 1969년 6월 27일, 8월 22일, 9월 30일.
인천중공업신용조합, 『신용조합 임원위원 회의록』, 1970년 1월 21일.
인천제철신용협동조합, 『정관』.
인천제철신용협동조합, 「이사회회의록」, 1972-1973년.
산우신협, 「1982년 정기총회회의록」 1982년 2월 1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산우신용협동조합 창립1주년 기념식」, 1971년 7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이사회 구성 및 조합원 현황과 지역분포도」, 1982년 6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산우신협)신용협동조합활동보고」, 1972년 10월 3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산우신용협동조합 교도부장 유정식, 『산우신용협동조합증모강습회』, 1971년 2월 17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산우신용협동조합 교육안내」, 날자 미상,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기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산우신협, 「정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조승혁, 「산업전도사업보고서(대성목재공업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인천제철 장동찬 노조지부장 해고」, 1973,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산우활동협의회의 목적」, 연도 미상(1970년대 초로 추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인천도시산업선교회, 「감리교도시산업선교회의 발전과 현황」(연도 미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과정에 대하여」(198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전체적 방향」, 연도 미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인천기독교산업선교회, 「자립기금 신청」, 연도 미상(1975년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인천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 소개와 활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전용환, 「지역사회 주민 권익을 위한 조직활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992년 9월 9일, 『1992년 2권 사업자등록신고 및 정정신고서철』,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1992 (국가기록원 소장).

한국신용협동조합연합회, 「인가신청조합명단」『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추가제출』(한신연 제73-127), 1973년 2월 26일 (국가기록원 소장).
「신용협동조합인가조서」(대성신협), 『신협설립인가철』,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비은행감독과, 1972 (국가기록원 소장).
「신용협동조합인가조서」「부민신용협동조합 추천서」, 1973년 8월 20일(국가기록원 소장).

김덕호 구술(2022년 2월 15일, 4월 29일, 5월 4일)
김성근 구술(2022년 4월 8일, 4월 21일, 4월 23일)
오경문 구술(2022년 4월 11일, 6월 5일)
정해영 구술(2022년 2월 15일, 3월 15일, 5월 10일).
이민우 구술(2022년 7월 2일)

곽재기 목사(예장총회 농촌부 총무), 「교회와 신용협동조합운동」,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농어촌부, 『교회와 농민: 선교편』, 양서각, 1986.
김도진, 「화수동과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작가들』 76, 2021.
김성도 장로(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선린촌), 「선린촌의 공동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농어촌부, 『교회와 농민: 선교편』, 양서각, 1986, 226-232면.
김소남, 「1970년대 원주지역 재해대책사업위원회의 농촌신협운동 연구」, 『동방학지』 166,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4.
김이경, 「사회적 관계에 기반한 대안적 금융의 신용체계 연구: 한 소규모 신용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석사논문, 201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농어촌부, 『교회와 농민: 선교편』, 양서각, 1986.
문만용・임경택, 「주물기술자인 저자와 1960년대 한국 주물공업」, 『인천일기 1』, 지식과교양, 2017, 43-44면.
방성찬, 「1960-70년대 원주교구의 지역 신협운동: 진광 협동교육연구소와 진광신협의 활동을 중심으로」, 강릉원주대 석사논문, 2017.
신명호 외,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한울, 2016.
오미일, 「1960년대 신용협동조합운동의 출발과 확산」, 『한국근현대사연구』 95, 2020, 389-419면.
이근원 외, 「선린협동촌」, 『사회학연구』 9, 1971, 80-81면.
이상록, 「1960-1970년대 조지 오글 목사의 도시산업선교활동과 산업민주주의 구상」, 『사이(SAI)』 19, 2015, 91-124면.
이종구 외 지음, 『1960-70년대 노동자의 생활세계와 정체성』, 한울아카데미, 2005.
이종전 편, 『기억하고 싶은 목회자들 Ⅰ, 인천』, 아벨서원, 2021.
이희현, 「선린 협동촌과 동막 어촌계 견학기」, 『사회학연구』 8, 이화여대 사회학과, 1970, 41-44면.
임인재, 「1960년대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과 조지 오글」, 『畿甸文化硏究』 40-2, 2019, 141-169면.
諸禧雨, 「勞組의 信用協同組合活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세미나, 1976, 93-146면.
趙承赫, 『도시산업선교의 인식』, 民衆社, 1981.
조승혁 외, 『노동자와 함께: 산업선교와 노동자 인권』, 기독교대한감리회 도시산업선교중앙위원회, 1978.
조화순, 『낮추고 사는 즐거움』, 도솔출판사, 2005.

진방주, 「한국 기독교 협동조합운동 연구: 영등포산업선교회 협동조합운동 "다람쥐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일장신대 석사논문, 2018.
최진배, 「1970년대 신협의 발전방향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검토」, 『한국협동조합연구』 30-3, 2012, 29-59면.
최진배・권오혁・김명록, 「한국 신협의 성장과 정체성 논쟁」, 『한국의 지역금융협동조합』, 율곡출판사, 2018, 4-60면.

【Abstract】

The Credit Cooperative Movement of Factory Workers in the 1960s and 1970s — Focusing on Incheon Area —

Oh, Mi-Il*

The Incheon Regional Credit Cooperative Movement, which began in 1962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Dapdong Credit Union, was first established by Catholicism based on church ties, but by the late 1960s, the trend changed to the establishment of a union based on factory workers' workplace ties. The establishment of a credit cooperative for factory workers was close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labor movement. However, it was the Methodist Incheon Christian Urban Industrial Mission that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labor movement in Incheon. Incheon Christian Urban Industrial Mission attempted to establish a credit cooperative with a credit union committee under the steering committee. In October 1967, 15 members of the Sanwoohoe Pyeongshin Group formed the Icheon Electric Credit Union, the first credit cooperative organized by factory workers in the Incheon area. In this article, the establishment process and operation of Daesung Credit Cooperative, Incheon Heavy Industries Credit Cooperative, and Sanwoo Credit Cooperative were analyzed as representative examples of credit cooperatives organized by factory workers, factory workers, and local residents.

These credit cooperatives rescued members from the swamp of high-interest bonds by carrying out loan projects such as ordinary loans, loans within the scope of investment, emergency loans, small loans, and special loans. Members of the union benefited from cooperative financing, which usually borrows living funds at an interest rate of around 2% per month (24% per year), which is much cheaper than commercial rings with more than 6% per month (72% per year).

* Professor, Inst. for Korean Unification, Pusan National Univ.

Keywords: Credit Union Movement, common bond, Incheon Christian Urban Industrial Mission, Daesung Credit Cooperative, Incheon Heavy Industries Credit Cooperative, Sanwoo Credit Cooperative, Pastor Lee Guk-sun, Baek Chang-seop, Jeong Yang-sook.

접수일: 2022.06.30. ‖ 심사일: 2022.07.18. ‖ 게재확정일: 2022.8.23.